

자 기 소 개 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이성근 (한자) 李成根
생년월일	1963.
성 별	남자
소 속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직 위	교수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2. 학력(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1981~1985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문학사	
1989~1993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경영학박사	
1997~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통계학박사	

3. 주요 경력(최근순)

기 간	기 관 명	직위.직급	비 고
2011-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2006-2011	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	
2004-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2022.06-2026.03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2020.09-2022.02	성신여자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2017.10-2018.06.	성신여자대학교	기획정보처장	

1997.03-2004.08	동양공업전문대학	조교수, 부교수	
1995.09-1997.02	S.K Telecom	유통2팀 팀원, 마케팅 연구팀 팀장	
1988.04-1989.08	A.C Nielsen 한국지사	연구원	

4. 상훈, 포상 (최근순)

상훈, 포상사항	종 류	일 자	기 관
	한국경영학회 우수경영학자상	2022년 8월	한국경영학회

5. 처벌, 징계 (최근순)

처벌, 징계사항	종 류	일 자	기 관

6. 교육, 연구,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총장 입후보자의 자기소개 (A4용지 5매 이내)

I. 출마의 변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불안의 강을 건너 가능성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말했고, 누군가는 후퇴를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저는 이미 증명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을 역임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격변하는 환경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세상에 하나뿐인 성신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성취로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우리 대학의 암울한 재정 추계를 뒤로하고 균형재정을 이루었으며, 적립금을 늘리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대학의 핵심 역할인 연구 성과는 두 배로 뛰었고, 연구 과제 수주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다시 성신의 앞에 서려 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해야 할 일, 완성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갈구하며 작은 걸음으로 나아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큰 걸음으로 성신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작게 이룬 성취를 다시 큰 걸음으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II. 강점

강점 1. 시간과 경험

저는 우리 대학에서 21년을 근무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획처장과 대외협력부총장으로 3년, 그리고 제12대 총장으로 4년여를 역임하며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바라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시스템의 특성상 대학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때로는 과감하게 힘을 합해 나아가간다면 우리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변화를 읽어내고, 그에 기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이 교육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도 구성원과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4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했으며, 처음 계획했던 일의 일부는 완성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진행 중이거나 기획 중인 일을 마무리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경험입니다.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경험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활동을 통해 어떤 일은 대학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S.K 텔레콤이라는 대기업과 A.C. 닐슨이라는 중소기업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은 실수를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대학을 더 나은 지위로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경쟁 대학들도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릅니다. 특히 기술의 변화는 어제와 오늘의 자세를 달라지게 할 만큼 급격합니다.

강점 2. 성격

저는 개방적이고 사회적이며, 친화력과 배려심, 그리고 경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즐기며, 누구를 만나든 공평하게 대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덕목은 바로 타인과의 교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충을 듣고, 공감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지난 4년 동안 더욱 학습되고 다듬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꿈과 상상력을 중시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대학은 꿈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의 발전은 꿈에서 출발합니다. 1990년대 말 MIT 교내 잡지에 ‘걸어 다니는 로봇(A Robot that walks)’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이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자극하며 논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갖춘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호기심과 문제 해결을 즐깁니다.

강점 3.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조정 능력

우리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집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교수와 학생의 핵심 기능이 경쟁력을 가질수록 이를 지원해야 하는 직원, 그리고 협력 기관들까지 모두가 우리 대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점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사회성, 배려심, 경청 능력 등 조정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또한 저는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합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공동체의 목표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저는 공동체의 규율을 중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으며 일해 왔습니다. 이는 교수로서의 입장에서도, 보직을 맡았을 때에도 변함없는 신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학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2004년 처음 대학에 왔을 때에도 학생처와 함께 학생들의 장학금을 기부받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과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학원생들과 연구하며 그들이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며 몸소 실천해 온 결과입니다.

강점 4. 고등교육에 대한 열린 철학

저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나아가 학문적 필요에 따라 통계학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경영학과 통계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구했습니다. 인문학에서 출발한 학문이 이과적 접근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경력은 여러 학문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강점은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통해 여러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48개의 학과와 학부가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잘 결합해 활용한다면 그 시너지는 매우 클 것입니다. 환경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학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학 발전계획서에서 ‘레고형 학문체계’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즉,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역량의 결합입니다. 이를 흔히 ‘융합’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를 협력(collaboration), 협동(cooperation), 그리고 연결(connectedness)이라 명명했고,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 대학 교육에 접목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모든 학문은 고유한 특성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의 근간을 흔들면 교육의 방향을 잃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학문 체계를 보존하면서도 융합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서로 다른 학문 간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이 얻게 될 역량을 ‘유연지성(flexible intelligence)’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은 경험입니다. 교육은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며, 전부는 아니더라도

도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과 같은 중규모 대학,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국내외 현장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Ⅲ. 성과

앞서 설명한 저의 경험은 지난 4년간 다음과 같은 성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대학의 여러 분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획처장과 부총장으로서의 경험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이루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과 1. 교육혁신

우리 대학은 한때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항목 중 특히 ‘교육혁신’ 분야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교육혁신 분야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에 재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계획에 따라 교육 분야 혁신을 하나씩 실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최고 등급인 S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은 대학 역할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융합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기존 학문을 보호하면서도 학생들이 자율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연계전공 등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결합하여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과가 좋은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강화했습니다. 특히 보안공학 분야는 첨단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사업을 수주했고, 전문대학원도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성과 2. 연구와 교수지원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또 다른 핵심 역할은 연구입니다. 임기 초반에 비해 대학의 연구 성과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과제 수주 규모는 10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성장했고, 지적재산권 국내 출원 건수도 4.9배 증가했습니다.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교수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교수들을 위해 ‘특훈 교수’ 제도를 마련해 활동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조기 승진’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교수들의 성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대외적 성과는 교수들의 논문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고, 이는 다시 대학 전체의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과 3. 국제화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저는 우리 대학의 미래가 국제화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국제화에 자원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 교류 대학과 기관의 수가 2022년 264개에서 현재 357개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2년 연속으로 교육부가 평가하는 교육국제화 역량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국제 학생 수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 수도 2022년 90명 수준에서 2025년 19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국제 세미나(통계학과, 미술대학)에서도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중국 대학들과 함께하는 한중 합작 전공은 초기 1개교에서 현재 4개교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추가적인 합작 전공을 신청 완료(2월)했거나 신청 예정(4월)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국 대학에 수출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의 교육 수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대학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화 관련 수강료 수입이

42억 원이던 것이 2025년에는 110억 원에 도달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학사 시스템의 다국어화, 영어 강좌 확대, 학생들의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 사회 적응, 국제 학생들을 위한 취업 활동 지원 등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과 4. 공동체 복지

임기 중 저는 16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교원과 직원들의 급여가 비로소 개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4년 동안 교원과 직원들의 급여를 총 8.55% 인상하여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성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설 투자도 병행했습니다. 구성원들의 건강검진 기관을 다시 대학 병원 수준으로 변경했고, 조형관과 음악관의 시설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학 역사상 최초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시설을 제주와 강원도에 확보했으며, 현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내 편의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교내 식당, 수정캠퍼스의 수정마루와 수정스퀘어, 수하루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구성원을 위한 복지를 재정비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소소한 일상이 결국 조직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고, 이는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성과 5. 재정과 교육 인프라 투자

대학의 재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2022년 550억 원 수준이었던 적립금은 2025년 말 59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유휴 부지를 사용하지 않아 부과되던 세금을, 보미라운지 기부 유치와 정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연간 4억 5천만 원 절감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아울러 정문 앞 유휴 부지에는 보미건설로부터 연면적 60평 규모의 건물을 기부받아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여고 앞 부지에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2,000평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여 구성원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산 관련 인프라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대학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시스템을 교체하여 대학의 정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IV. 향후계획

계획 1. 교육혁신의 가속화

대학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학 환경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학문 단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조직 변화로 인한 혼란, 내부 저항으로 인한 시간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문을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 단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레고형 학문체계’라고 부릅니다. 즉, 기존의 융합연계전공처럼 이미 확보된 학문 단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원과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학문 단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지성(flexible intelligence)’을 갖춘 균형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획 2. 연구성과의 확대

우리 대학은 이미 상당 수준의 연구 성과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과 연구 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천편일률적인 제도는 조직의 활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특훈 교수 제도’,

‘조기 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향후에는 강의 부담을 덜어주는 책임 강의 시수 축소, 연구비 지원 확대, 신입 교원 시수 감면 등 신입 교원 정착 패키지를 통해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퇴직 교수의 정년을 연장하는 ‘3+3 제도’와 같이 연구 역량이 있는 경력 교수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더욱 높여갈 예정입니다.

계획3. 복지제도의 확충

급여는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가시적 복지 혜택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학의 급여 인상률은 약 8.55%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동결된 지난 16년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야 하며, 근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주 4일제 근무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재택근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워라벨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계획4.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인프라는 교육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입니다. AI 시대에 맞추어 AI를 교육과 업무에 도입해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성과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전산 인프라를 전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터넷망을 최신 인터넷망으로 개편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수정관·조형관·과학관·운정관 대강당 등 낙후된 건물의 내부와 외관을 정비하여 교육 및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계획5 국제화의 가속화

국제화는 우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국제화는 대학의 영역을 확대하여 교육 성과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해외 학생과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의 경험 세계를 넓히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총장 입후보자 이 성 근

